

참사랑 소방정신 실천

포천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포천소방서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맞아 평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 전달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참사랑 소방 정신을 실천했다.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평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 전달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참사랑 소방 정신을 실천했다.

노인 양로시설인 목련의 집, 우리집, 장애시설인 교통장애인협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포천소방서 전직원이 동참해 매일 1천원씩 또는 성금을 전달했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장애를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작은 성금이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참사랑 소방 실천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온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관인면 주민숙원사업 현지 확인

주민숙원사업 각 리별 신청지 11개 마을 21건

관인면(면장 이문근)은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책정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의 소리와 행정이 혼연일체 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는 각 마을별로 제출된 세전 정비, 배수로설치, 도로포장, 휴게시설 및 마을청소 재촉 등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관인면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최춘식)들이 사업의 시급성(재해, 주민불편, 기타사업 필요)과 주민 수혜도 및 마을 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따른 사업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당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최춘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각 리장들과 토목담당자(김성진/관인면 근무)의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 듣고 개인의 의견과 질문도 이어졌다.

관인면은 2006년 3월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역을 위한 열정은 오래된 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리별 주민 숙원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살기 좋게도 및 마을 내 우선순위를 비롯하여 주민 모두의 노력을 끊임없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희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관인면은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책정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의 소리와 행정이 혼연일체 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포천쌀 동남아 첫 수출 약정체결식

포천시, 사과, 포도, 버섯도 수출 계획

포천시는 9월20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강림 시의회위원장, 최병문 한농연 포천시연합회장을 비롯한 농업관련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쌀소비국인 동남아(인도네시아에) 포천쌀(경기미) 첫 수출을 위한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관내 RPC에서 2007년산 햅쌀로 가공된 ‘해솔촌’ 경기온천쌀이며, 9월20일 2.5톤(6천500달러)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며 9월23일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항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쌀은 (주)이지쿡을 통해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이 쌀을 수입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한 투자법인 PT. KORINHUB이며, 현지 판매처로는 자카르타의 교포를 대상으로 포천쌀이 판매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이번에 수출되는 쌀의 판매촉진과 현지 한인교포의 현지

판매현황을 파악 후 수출 물량을 현재 월 5톤에서 10톤 정도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출되는 포천쌀은 시스템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199GRice’로 수출할 계획이며 지금의 인도네시아 수출에만 만족하지 않고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최대한 수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포천쌀을 세계속의 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9월20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적으로 쌀소비국인 동남아에 포천쌀 첫 수출을 위한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목회단상

이중창(二重唱)의 미(美)

인생의 있어서 독창보다는 이중창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말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이중창의 아름다움이다.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고집하기 전에 꼭 참고 남의 주장을 들어보는 것이 이중창이다.

자기를 이해하여 주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남을 이해하고 그의 노래에 맞추어 노래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럴 사람이라고 부른다. 합창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남의 노래를 듣는다. 자기를 함창에 맞추기 위

해서. 이것이 합창의 묘미다. 인생은 합창의미를 잘 맞추는 사람이 사랑 받고 대접받는다.

독불장군은 인기가 없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권고하신다. 빌립보서 2장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으라”고 일러주신다.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문의) 031-532-2489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 실시

포천시 9월부터 최상의 서비스 제공

포천시는 2007년 9월부터 민원처리과정 안내와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점검, 환류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Happy-call, Catch-call)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중간 해피콜’을 실시하고 행정혁신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민원 중 완결된 민원에 대해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 등을 통해 ‘최종 해피콜’ 만족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업무담당자가 당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객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고객들에게 퇴근 전에 전화로 재 상담을 실시하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캐치콜(Catch-call)’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포천시 송모 고객은 행정기관에서도 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조사하는 건 처음이라며 더욱 서비스를 향상함에 최선을 다할 바라며 소감을 밝혔다.

시(市)관계자는 민원모니터링 실시로 고객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을 특별한 고객으로 대해 준다는 인식과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2007년 9월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점검, 환류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Happy-call, Catch-call)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급대상가구 안전복지서비스

포천시,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등

포천시는 추석을 맞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의 전기시설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근)와 위탁협약을 맺은 포천시는 1천 500만원을 들여 200여 세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무료 개·보수, 단독형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했다.

이는 올 상반기 실시한 사업대상세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밀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노후한 배선은 철거 후 재설치 하고 불량 누전차

단기는 교체하는 등, 부적합 시설을 개·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전기안전사고(화재, 감전 등)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유도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평상시에 미리 준비한다는 예방행정의 일환으로 이 같은 시책을 실시했다며 “전기사고는 대형 화재와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추석을 맞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의 전기시설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시설 무료개·보수 사업을 실시했다.

“깨끗한 영북면 만들어요”

참살이 실버 지킴이 발대식

지난 21일 오전 9시 영북면사무소 광장에서는 영북면 노인회 임원 및 육군 제 3739부대 장병과 유관기관·단체 220명이 참석하여 참살이 실버지킴이 발대식 및 증추절 손님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에 이어 참살이 실버지킴이 단장 위촉식, 단복증정, 어깨띠 걸어주기, 참살이 영북 선서, 지킴이 선언문 낭독, 대회사, 축사, 증추절 손님맞이 대청소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살이 실버지킴이 단장으로 위촉된 임은재 영북 노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영북면 노인들은 자기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며 물심양면 도와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배상택 영북면장은 “정결, 질서, 안전을 생활철칙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참살이 실버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민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우나 집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고 국군장병들이 숭신수범해 나가기를 바라며 증추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청결, 질서, 안전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참살이 실버 지킴이를 구성하여 노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떠나고 싶지 않은 고향-영북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관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자연보호 협의회 ▶참살이 실버 지킴이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기수연합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향토회 ▶의용소방대 ▶이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육군 제 3739부대 ▶영북면사무소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지난 21일 영북면사무소 광장에서는 영북면 노인회 임원 및 육군 제 3739부대 장병과 유관기관·단체 220명이 참석하여 참살이 실버지킴이 발대식 및 증추절 손님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광고

귀사의 제품 포장에는 **EPS** 산업이 함께 합니다!

고품질! 저단가!

- **진공성형** : 각종 문구류 케이스, 식품용기, 농자재류, 전자부품트레이, 각종 브리스타용 덮개 등
- **계도바시** : 오디오·비디오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학습교재 등
- **고주파가공** : 브리스타접착, 크레파스, 각종 필기류 등 경·연질 접착
- **건축자재** : 가설 방음벽, 건축내외장재-에버우드/뱀브월드

주소 : 포천시내내내 용정리237-3
전화 : 031)543-8338 H.P 011-796-4811
www.epsko.co.kr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⑧

통일 후의 토지 소유권 문제

서희석
대성지역(83)기초법
대표이사

현재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토지 소유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일과 동시에 단일화되어야 한다. 북한 지역 토지 재산권 처리 문제는 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소유 제도로 전환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한의 토지제도를 통일 후의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현재 우리의 토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제도는 사유화를 기본으로 원소유자의 반환과 보상, 재국유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독일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에는 법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통일에 대한 법적인 인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독일은 통일에 대비해서 정부, 법학자, 법률가 등이 헌법을 잠정적으로 설정하여 그 전제 하에서 통일을 준비하였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준다. 그러나 남북한은 각자의 체제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존재임을 주장하며 서로 상대를 부정하고 있으며, 법적 역시 상대 체제를 대립적 구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남한의 법제에 따르게 되면 북한의 체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모든 실정 법규는 효력이 정지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의해 법적인 문제는 단순히 해결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현행 남한의 법제가 통일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어 운영될 경우 문제가 제기된다. 남한과 이질적인 질서 하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법질서의 경험은 상당한 혼란과 당혹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법질서는 일대 혼란 속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합리적 법 통합 없는 일

편향적 질서로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에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어진다. 물론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과거로부터의 무조건적인 단절에서 오는 것은 아닌 과거의 경험을 발판으로 하는 것이기에 남한법, 북한법이라는 한국법의 각기 다른 태두리에서 통일 한국의 법질서에 관한 법률 통합의 방법론과 한계성에 관한 문제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일 한국의 토지관련 법제는 남북한의 기존 질서를 바탕으로 조화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경우 수백 종의 토지 관련 법률이 존재하여 큰 혼란이 오고 있으며 반면에 북한의 경우 토지 관련 법률이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남북한 토지 소유의 형태에 의한 것으로 남한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큰 토지의 이용 등과 관련이 있어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의 시대에는 국토의 이용·관리에 있어 각종의 복잡한 법률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